

## VI. 부록 – 고사별 문항 카드

### 문항카드 1. 논술전형 인문 T1

####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의사들의 성과 동기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에 A국의 한 의료 연구기관은 자국 민간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성과급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급제 도입이 의사의 진료량을 도입 이전 대비 5~6배 증가시키고, 의사들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검사나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 현상도 나타나는데, 병원 간 경쟁이 심할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병원 인력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할 일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은상준, 「의사 성과급: 수익에서 의료의 질로」 재구성

##### (나)

인류는 약 6천 종의 식물을 먹으며 생존해 왔다. 식물은 특정한 지역의 기후와 토양, 물, 고도에 맞춰 진화했고, 사람들은 그런 식물들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독일 남부 알프스 산지에서는 토양이 척박해 다른 식물은 못 자라지만, 알브린제(알프스 렌틸)라고 알려진 재래 품종 콩과 작물은 잘 자랐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렌틸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좋은 벼와 밀 품종이 개발되고, ‘소품종 대량생산’의 농업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밀과 벼, 옥수수 단 3종에만 전체 칼로리의 50퍼센트를 의존하게 됐다. 알브린제 품종의 렌틸콩 역시 소출이 많은 렌틸 품종이 개발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음식의 균질화’는 곡물뿐 아니라 육류, 과일, 치즈 등 다양한 음식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돼지고기 생산은 단 한 품종, ‘라지화이트’라는 돼지 유전자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라지화이트 품종 돼지는 다른 품종과 달리 몸체가 길고 체중이 빨리 불어난다. 바나나도 1,500가지 이상의 품종이 있지만 ‘캐번디시’라는 품종만 거래되고 있다. 이렇듯 무역, 기술, 산업 분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결과로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가축 전염병, 바나나 역병 등의 충격이 거대한 식량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 양선아, 「음식이 ‘멸종’하고 있다」 재구성

#### (다)

2000년 이후 패스트패션(fast fashion) 기업들은 크게 유행성, 모방성, 일회성, 휴대성, 변형성, 통합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패스트패션 산업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속도감에 적응된 현대인들은 모든 현상의 유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의 소비 패턴을 보였다. 또한 일시적이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사회는 일회적으로 구매하고 교체하는 행동 습관을 낳게 했고, 이동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유목성은 휴대하기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변화 지향적 사회, 급변하는 생활 방식을 반영하여 다양한 변형 상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했다. 여기에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공존하는 흐름은 문화의 융합을 통해 패스트패션의 글로벌 확산을 가져왔다. 패스트패션 기업은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유행과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였다.

- 노주현, 「패스트패션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 재구성

#### (라)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irc}\text{C}$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었고,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circ}\text{C}$ 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지구 온난화  $1.5^{\circ}\text{C}$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1.5^{\circ}\text{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감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진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역시 배출량의 증가세가 완만해진 상태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들이 이미 다수 국가에서 설정되고 법상으로도 명문화되어 국가 단위에서의 목표 설정 단계는 지난 상황이다. 주요국들은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전은진, 『탄소중립…』 재구성

## (마)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은 미술 단체의 정기 관람회인 살롱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곤 했다. 당시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곱고 예쁜 그림, 교훈적인 그림만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드러난 그림으로 승부하려는 신진 화가들은 이름을 알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프랑스의 몇몇 신진 화가들이 독자적인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모네는 세잔,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과 함께 ‘무명협동협회’를 결성하여, 작품 165여 점을 전시하였다.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를 본 평론가 르루아가 조롱의 의도를 담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글을 쓰면서 곧 이들의 화풍을 인상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이들의 그림과 전시회는 처음에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서 외면을 받았으나 점차 큰 화제가 됐다. 한순간의 인상을 담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붓질을 하고, 구체적인 형상은 과감히 생략하면서까지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주의 화풍은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을 선으로 묘사하는 대신 색조로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인상주의는 현대미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 김광우,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재구성

## (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  
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돋다.

## (중략)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중에서

## (사)

현대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할수록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계속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게 혜택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간이 AI에 의존하는 경향은 인간의 사고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음향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 AI 기술 연구와 활용에 필요한 반도체 제작, 전력 생산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기술 발달의 욕구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

위지는 상황인데도 AI의 활용이나 AI 그 자체가 인간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는 기술 연구를 통제하는 방안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AI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수준에는 이미 도달했으며, AI가 스스로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동의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기만할 정도로 고도화되는 수준도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의 작용이 인간의 의도,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미래 세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CAIS, 「AI 위험에 대한 성명」 재구성

[문제 1] (가) ~ (바)는 어떤 ‘변화’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가) ~ (바)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40점)

[문제 2] <보기 1>을 바탕으로 (다)와 (라)를 대조·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40점)

#### <보기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욕구와 편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일회적으로 소비한 후 폐기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확대하고, 셋째, 국가 간 협력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문제 3] <보기 3>의 요나스(Jonas)의 관점에서 (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 3>의 벤담의 관점에서 <보기 2>의 밑줄 친 주장이 왜 타당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320점)

#### <보기 2>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일상에서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AI 개발 및 규제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A는 AI의 부작용과 관련된 최근의 우려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이 AI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보기 3>

(A) Hans Jonas, a distinguished German-born philosopher, presents three compelling reasons why ethical responsibility is essential i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rst reason is the ambiguity of outcomes. This implies that even when science and

technology are used for good purposes, they may contain elements that could have potentially harmful effects in the long term.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does not solely depend on intentions or goals; even technologies employed for legal aims can also pose potential threats. The second reason is the compulsion to apply new technologies. As science and technology open up new opportunities, the demand for their application arises, resulting in an uncontrollable desire for more. The third reason concerns the extensive spatio-temporal\* impact of technologies. Their reach extends beyond immediate geographical limits, potentially affecting many generations to come. The power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inescapable; the actions we undertake today for our own benefit can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in other places and for our descendants.

\*spatio-temporal: 시공간의

(B) 벤담(J. Bentham)은 행복을 쾌락으로 보았다. 쾌락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이다. 즉, 하나의 행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한다.

## VI. 부록 – 고사별 문항 카드

### 문항카드 1. 논술전형 인문 T1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인문계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영어Ⅱ, 통합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변화, 지속가능발전, 책임 윤리
예상 소요 시간	90분	

####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의사들의 성과 동기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에 A국의 한 의료 연구기관은 자국 민간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성과급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급제 도입이 의사의 진료량을 도입 이전 대비 5~6배 증가시키고, 의사들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검사나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 현상도 나타나는데, 병원 간 경쟁이 심할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병원 인력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할 일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은상준, 「의사 성과급: 수익에서 의료의 질로」 재구성

##### (나)

인류는 약 6천 종의 식물을 먹으며 생존해 왔다. 식물은 특정한 지역의 기후와 토양, 물, 고도에 맞춰 진화했고, 사람들은 그런 식물들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독일 남부 알프스 산지에서는 토양이 척박해 다른 식물은 못 자라지만, 알브린제(알프스 렌틸)라고 알려진 재래 품종 콩과 작물은 잘 자랐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렌틸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좋은 벼와 밀 품종이 개발되고, 「소품종 대량생산」의 농업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밀과 벼, 옥수수 단 3종에만 전체 칼로리의 50퍼센트를 의존하게 됐다. 알브린제 품종의 렌틸콩 역시 소출이 많은 렌틸 품종이 개발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음식의 균질화’는 곡물뿐 아니라 육류, 과일, 치즈 등 다양한 음식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돼지고기 생산은 단 한 품종, ‘라지화이트’라는 돼지 유전자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라지화이트 품종 돼지는 다른 품종과 달리 몸체가 길고 체중이 빨리 불어난다. 바나나도 1,500가지 이상의 품종이 있지만 ‘캐번디시’라는 품종만 거래되고 있다. 이렇듯 무역, 기술, 산업 분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결과로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가축 전염병, 바나나 역병 등의 충격이 거대한 식량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 양선아, 「음식이 ‘멸종’하고 있다」 재구성

#### (다)

2000년 이후 패스트패션(fast fashion) 기업들은 크게 유행성, 모방성, 일회성, 휴대성, 변형성, 통합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패스트패션 산업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속도감에 적응된 현대인들은 모든 현상의 유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의 소비 패턴을 보였다. 또한 일시적이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사회는 일회적으로 구매하고 교체하는 행동 습관을 낳게 했고, 이동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유목성은 휴대하기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변화 지향적 사회, 급변하는 생활 방식을 반영하여 다양한 변형 상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했다. 여기에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공존하는 흐름은 문화의 융합을 통해 패스트패션의 글로벌 확산을 가져왔다. 패스트패션 기업은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유행과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였다.

- 노주현, 「패스트패션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 재구성

#### (라)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irc}\text{C}$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었고,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circ}\text{C}$ 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지구 온난화  $1.5^{\circ}\text{C}$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1.5^{\circ}\text{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감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진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역시 배출량의 증가세가 완만해진 상태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들이 이미 다수 국가에서 설정되고 법상으로도 명문화되어 국가 단위에서의 목표 설정 단계는 지난 상황이다. 주요국들은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전은진, 『탄소중립…』 재구성

## (마)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은 미술 단체의 정기 관람회인 살롱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곤 했다. 당시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곱고 예쁜 그림, 교훈적인 그림만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드러난 그림으로 승부하려는 신진 화가들은 이름을 알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프랑스의 몇몇 신진 화가들이 독자적인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모네는 세잔,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과 함께 ‘무명협동협회’를 결성하여, 작품 165여 점을 전시하였다.**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를 본 평론가 르루아가 조롱의 의도를 담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글을 쓰면서 곧 이들의 화풍을 인상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이들의 그림과 전시회는 처음에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서 외면을 받았으나 점차 큰 화제가 됐다. 한순간의 인상을 담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붓질을 하고, 구체적인 형상은 과감히 생략하면서까지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주의 화풍은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을 선으로 묘사하는 대신 색조로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인상주의는 **현대미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 김광우,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재구성

## (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  
 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돋다.

## (중략)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중에서

## (사)

**현대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할수록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계속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게 혜택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간이 AI에 의존하는 경향은 인간의 사고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음향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 AI 기술 연구와 활용에 필요한 반도체 제작, 전력 생산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기술 발달의 욕구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

워지는 상황인데도 AI의 활용이나 AI 그 자체가 인간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는 기술 연구를 통제하는 방안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AI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수준에는 이미 도달했으며, AI가 스스로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동의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기만할 정도로 고도화되는 수준도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의 작용이 인간의 의도,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미래 세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CAIS, 「AI 위험에 대한 성명」 재구성

[문제 1] (가) ~ (바)는 어떤 ‘변화’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가) ~ (바)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40점)

[문제 2] <보기 1>을 바탕으로 (다)와 (라)를 대조·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40점)

### 〈보기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욕구와 편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일회적으로 소비한 후 폐기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확대하고, 셋째, 국가 간 협력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문제 3] <보기 3>의 요나스(Jonas)의 관점에서 (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 3>의 벤담의 관점에서 <보기 2>의 밑줄 친 주장이 왜 타당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320점)

### 〈보기 2〉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일상에서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AI 개발 및 규제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A는 AI의 부작용과 관련된 최근의 우려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이 AI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보기 3〉

(A) Hans Jonas, a distinguished German-born philosopher, presents three compelling reasons why ethical responsibility is essential i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rst reason is the ambiguity of outcomes. This implies that even when science and

technology are used for good purposes, they may contain elements that could have potentially harmful effects in the long term.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does not solely depend on intentions or goals; even technologies employed for legal aims can also pose potential threats. The second reason is the **compulsion to apply new technologies**. As science and technology open up new opportunities, the demand for their application arises, resulting in an uncontrollable desire for more. The third reason concerns the **extensive spatio-temporal\* impact of technologies**. Their reach extends beyond immediate geographical limits, potentially affecting many generations to come. The power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inescapable; the actions we undertake today for our own benefit can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in other places and for our descendants.

\*spatio-temporal: 시공간의

(B) 벤담(J. Bentham)은 행복을 쾌락으로 보았다. 쾌락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이다. 즉, 하나의 행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한다.

### 3 출제 의도

2024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T1은 ‘변화’의 양상과 결과를 핵심 주제로 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변화’의 결과에 대한 분류·요약, [문제 2]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조·평가, [문제 3]은 AI 기술에 대한 윤리 의식 적용·추론의 능력을 평가한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제시한 후, [문제 2]에만 사용되는 <보기 1>, [문제 3]에만 적용되는 <보기 2>, <보기 3>을 추가로 배치하고 <보기 3>에는 영어 지문을 포함하였다. 문항마다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특정 문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지문을 기반으로 핵심어, 요지, 영어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김광우	미래엔 아이세움	2007	-	제시문 (마)	○
AI 위험에 대한 성명	CAIS	CAIS	2023	-	제시문 (사)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재정금융 정책관실	국무조정실	2022	-	보기 1	○

## 5 문항 해설

[문제 1]에서는 (가)~(바)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들을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변화와 결과를 요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 (나), (바)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변화, (다), (라), (마)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변화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보기 1>을 바탕으로 (다)와 (라)를 대조·평가하도록 했다. <보기 1>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이 성장과 개발에 있어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강조한 개념이며,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다)와 (라)를 대조·평가하면, (다)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지 않는 부정적 사례인 반면, (바)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 3]에서는 <보기 3>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를 요약하고, 추론의 근거로 제시된 <보기 3>의 벤담의 관점을 연결하여 <보기 2>의 사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했다. <보기 2>에서는 국제기구 A가 잠정적으로 AI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러한 선언이 왜 타당한지를 요나스의 책임 윤리와 벤담의 공리주의를 종합하여 논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AI가 현재 많은 편리를 제공하지만 결과의 모호성, 적용의 강제성, 시공간적 광역성을 고려했을 때 AI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준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영어 <보기 3> (A)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 태생의 유명 철학자 한스 요나스(Hans Jonas)는 현대 과학기술에서 윤리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결과의 모호성이다. 결과의 모호성이란 과학기술이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지라도 그러한 기술에는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옳고 그름의 구분은 의도나 목적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도 잠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술 적용의 강제성이다. 과학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면 기술 적용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그 결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통제할 수 없는 욕구가 생겨난다. 셋째, 기술의 시공간적 광역성이다. 기술의 영향력은 인접한 지리적 영역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힘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은 다른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섯 개의 제시문들이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로 분류되어야 함</li> <li>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li> </ul>	240
문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언급되어야 함</li> <li>(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함</li> <li>(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함</li> </ul>	240
문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나스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과학 기술에서 윤리적 책임을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함</li> <li>요나스의 세 가지 이유를 (사)에 적용하여 AI 기술 개발이 결과 모호성, 적용의 강제성, 적용의 시공간적 광역성을 가짐을 기술해야 함</li> <li>&lt;보기 3&gt;에서 행위 결정 시, 행위가 가져올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이 언급되어야 함</li> <li>벤담의 관점에서 AI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간에게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AI 기술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국제기구 A의 선언이 타당함을 언급해야 함</li> </ul>	320

## 6 채점 기준

##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p>■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 (다), (라), (마)를 ‘긍정적 변화’로, 제시문 (가), (나), (바)를 ‘부정적 변화’로 분류한 경우</li> <li>각 제시문의 요약에서 아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사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의료비용 상승, 의료서비스 질 하락</li> <li>(나) 소품종 대량생산, 음식의 균질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하락</li> <li>(다) 패스트패션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욕구 충족</li> <li>(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국제적 노력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li> <li>(마)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한 화풍의 변화와 현대 미술의 탄생</li> <li>(바) 성북동 산에 벤자가 생겨 비둘기가 쫓기게 된 결과</li> </ul> </li> <li>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li> <li>-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li> <li>-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li> </ul>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li> <li>-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li> <li>-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li> </ul> </li> </ul>

등급		[채점 기준]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위에서 제시한 핵심어/유사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li> <li>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li> <li>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li> <li>주어진 자수<math>\pm 10\%</math>를 벗어나고, <math>\pm 20\%</math>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li> <li>주어진 자수<math>\pm 20\%</math>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li> </ul> </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긍정적 변화’과 ‘부정적 변화’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li> <li>주어진 자수<math>\pm 20\%</math>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li> </ul> </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li> <li>답안 작성은 중간에서 멈춘 경우</li> <li>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li> <li>답안 작성은 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p>■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건1 : &lt;보기 1&gt;을 이용해 <b>지속가능발전의 개념</b>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li> <li>요건2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b>(다)의 패스트패션 산업의 문제점</b>을 기술한 경우</li> <li>요건3 : <b>(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을</b> 기술한 경우</li> <li>요건4 : <b>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b>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li> <li>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li> <li>주어진 자수<math>\pm 10\%</math>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A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li> <li>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li> </ul> </li> </ul>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ul>

등급		[채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li> <li>-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li> <li>- 주어진 자수±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li> </ul>
B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 A+에서 제시한 요건 1,2,3,4 중 1개 항목 누락</li> <li>-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li> <li>-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li> <li>-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li> </ul>
	B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li> <li>-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중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li> <li>-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2개 항목 누락</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li> <li>-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3개 항목 누락</li> <li>-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li> <li>-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4개 항목 누락</li> <li>• 답안 작성은 중간에서 멈춘 경우</li> <li>•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li> <li>• 답안 작성은 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측면에서 아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한 경우</li> <li>■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1 :〈보기 3〉을 이용해 요나스의 주장을 설명한 경우</li> <li>- 요건2 :요나스의 첫 번째 주장을 AI 산업에 적용해 결과의 모호성을 설명한 경우</li> <li>- 요건3 :요나스의 두 번째 주장을 AI 산업에 적용해 적용의 강제성을 설명한 경우</li> <li>- 요건4 :요나스의 세 번째 주장을 AI 산업에 적용해 적용의 시공간적 광역성을 설명한 경우</li> <li>- 요건5 :벤담의 주장(행위 결정 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한다)을 설명한 경우</li> <li>- 요건6 :벤담의 주장에 입각해 AI 기술 개발의 잠정적 중단 선언이 타당함을 기술한 경우</li> </ul> </li> <li>•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li> <li>-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li> <li>-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li> </ul> </li> </ul>

## 7 예시 답안

## [문제 1]

변화의 결과에 따라 (가)~(마)를 분류하면 (가), (나), (바)는 부정적, (다), (라), (마)는 긍정적 결과로 나눌 수 있다. (가)에서 의사 성과급 제도 도입은 의료비용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게 했고, (나)에서 품종 개발,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의한 음식의 균질화는 생물 다양성을 현저히 감소하게 했다. (바)에서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긴 것은 성북동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까지 낳지 못하고 쫓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패션 욕구를 충족시켰고, (라)에서 세계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한 화풍의 변화는 현대 미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405자)

## [문제 2]

<보기 1>은 지속가능발전이 성장과 개발에 있어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강조함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와 (라)는 대조를 보인다. (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은 현대인들의 패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패션 산업은 일회적 소비와 폐기, 다양한 상품들의 빠른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면서, 환경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를 이루었고, 탄소중립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456자)

## [문제 3]

요나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과학 기술에서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사)에 적용하면, 첫째, AI가 현대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모호하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그 적용의 강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AI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이 시공간적으로 광역적이다. 이를 벤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벤담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그 행위가 가져다줄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AI가 현재 인류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가진 우려들로 인해 인간에게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AI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국제기구 A의 선언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할 수 있다. (509자)

## 2024학년도 한국외대 인문계 T1 예시 답안(1회차 수업)

### [문제 1]

(가), (나), (바)는 변화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다), (라), (마)는 변화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다. (가)에서 병원의 성과급 제도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수의성이 높은 진료를 하게 하여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과잉 진료와 의료 서비스의 질 악화를 초래했다. (나)에서 소품종 대량생산과 음식의 균질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각종 역 병으로 식량 재앙이 초래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바)에서는 성북동 산에 범지가 새로 생기면서 비둘기가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과 평화도 낳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의 확장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으로 이어졌다. (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로 이어졌다. (마)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한 화풍 변화는 현대 미술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435자)

### [문제 2]

<보기1>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의 이익뿐 아니라 미래 세대와 생태계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양자 간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의 패스트 패션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다)의 패스트패션 산업은 현대인의 패션 욕구를 충족시키나, 일회적 소비와 폐기, 다양한 상품들의 빠른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며 환경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소비를 강조하는 <보기1>의 관점과 상충한다. 반면, (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이루어졌고, 탄소중립의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되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과 국가 간 협력 체제 강화를 강조하는 <보기1>의 관점에 부합한다. (493자)

### [문제 3]

<보기3>의 요나스의 관점에 따르면, (사)의 AI 기술에 대해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요나스는 결과의 모호성, 적용의 강제성, 영향의 시공간의 광역성이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강력한 이유라고 보았다. 그런데 (사)에 따르면 AI는 현대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의 가능성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의 강제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AI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이 시공간적으로 광역적이다. 따라서 <보기3>의 벤담의 입장에서 AI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기2>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는 AI 기술 개발이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벤담

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가져올 쾌락과 고통의 계산에 따라 결정되는데, AI가 현재는 인류에게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으로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548자)

유삼한 인문논술

원포인트 특강의 수업 자료와 같은 형식으로 저의 제시문 필기와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ysh04129로 연락해 주시면, 구매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이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인문계 기출문제 3개와 사회계 기출문제 1개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이 논제들에 대한 해설 강의 두 개(Zoom 진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구매하실 수도 있고, 자료와 강의를 모두 구매하실 수도 있으나, 강의만 구매하시는 것과 자료의 일부, 강의의 일부만 구매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sup>\*</sup>

--

#### 강사 소개 (유삼환)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재학
- 시대인재Books <논술의 정석 - 기본편> 저자
- 시대인재Books <논술의 정석 - 성균관대편> 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전형 1회 합격(2025학년도 프랑스어학과)
- 연세대학교 논술전형 2회 합격(2022학년도 경영학과, 2023학년도 교육학부)
- 성균관대학교 논술전형 4회 합격(2019학년도 사회과학계열, 2020학년도 글로벌리더학부, 2024학년도 글로벌경영학과, 2025학년도 경영학과)

\* 모든 자료와 강의는 제가 작년에 진행한 한국외대(인문계) 논술 파이널의 수업 자료와 강의입니다. 작년에 제 한국외대(인문계) 논술 파이널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은 이 자료와 강의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